

9 9 9 9 9

11월

월간보고서♡♡

라이동에서의 경동의 드라마

100% 수작업

메이드 인 타일랜드

우리가 손으로



쓰는 이유?

1. 손글씨와 손그림도 우리만의 개성이다.
2. 이번 달 보고서는 조금 더 다르게 할순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팀원이 이번에는 손으로 하느라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만장일치로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
3. 서로의 집이 멀고 학교가 끝나면 한 곳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좀 작업하는 것이 분가능하다.
4. 한 번쯤은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귀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



## 마을소개

램푼 정วัต에 위치한 라이동 마을은 우리가 살던 산캄팜 YMCA에서 70km정도 떨어진 마을이다.

높은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흰색 구름 한 점 없는 파아란 하늘아래 말라꺼 (파파야) 나무만이 무성한 조용한 시골마을이다.



## 학교 소개

유치원부터 중3까지 총 60명이 재학 중인 라이동 학교. 각 학년에는 3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한 학급을 이루고 있다.

선생님께서서는 8분이 계시는데 인원이 부족하여 4, 5 학년은 근처 왓남딩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솔 직 한



까 몬 의 11 월



이 보고서는 이면지 100%로  
제작하였습니다.



싸와티 캅  
홈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พ่อ ลักขณพัทธ์

(파 수캐오)

큰 여여 (많이 먹어)를 말  
하며 까몬의 고춧기 대량의  
밥을 넣어주신다.



แม่ สุแก้ว

(매 주빠)

한 잔의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자. 호탕한  
웃음이 매력포인트



น้อง กิ่ง

(녕 쟁)

댄스음악 애호가.  
하루 종일 그의 곁에는  
리듬이 흐른다.



พี่ กิ่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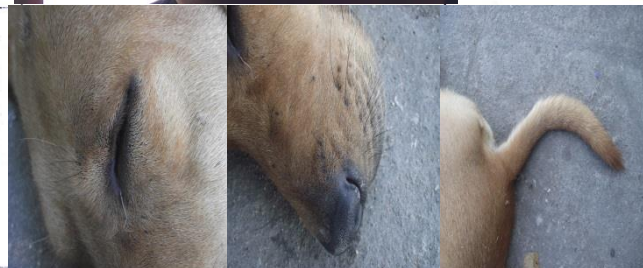
(폼 까몬)

파파야 애호가. 하루 일과  
는 파파야를 자르고 먹는 것.  
게 쳐다보기를 좋아한다.



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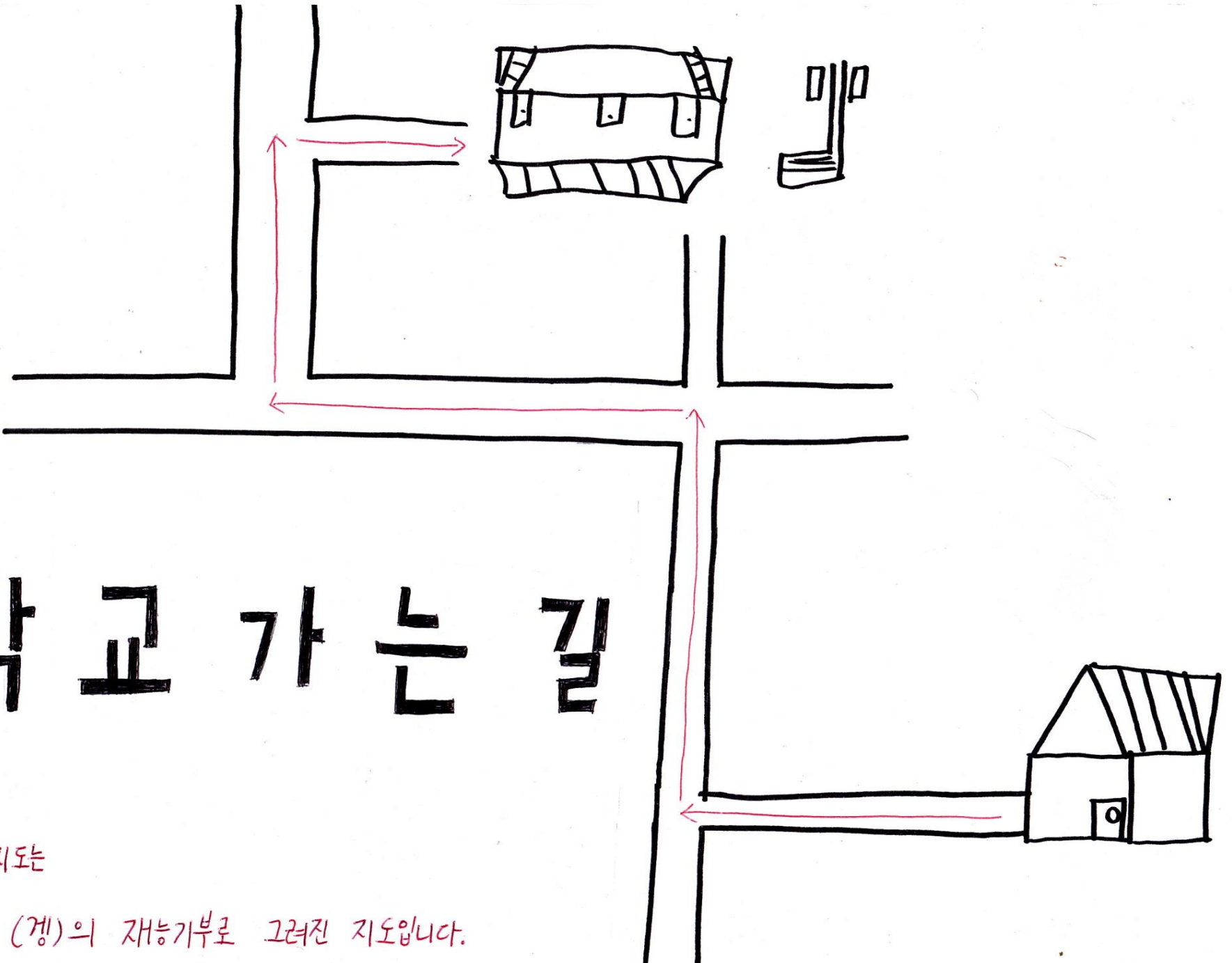
까몬이 부르는 소리에 신나서  
달려오지만 까몬의 빈 손을 보고  
허탈해한다.



개2

우리집 개  
같은  
옆집 개

# 학교가는길



위 지도는  
6학년(계)의 재능기부로 그려진 지도입니다.

# 수업이 시작하기 전



한국적이지 않은 것

뭘 가르치지?

일회성이 아닌 것

프롬?

처음 수업 준비를 할 때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까 고민이 많았다. 산캄핑 YMCA에 있는 장구를 보고 한국의 전통 악기를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다가, 왜 한국적인 것은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까를 생각했다.

미술, 음악, 체육은 내가 재미있게 하는 것들이고, 내 전문인 경계는 뜬금없다고 생각했다. 영어, 수학은 생각하다가 한국어가 떠올랐다. 내가 태극어를 공부하고 있듯이, 아이들도 한국어를 공부한다면, 내가 지원서에서 얘기한 문화 교류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형식적으로 간단한 인사만 알려주는 것 보다는, 내가 떠나더라도 아이들이 계속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 하려고 한다.



장구?

수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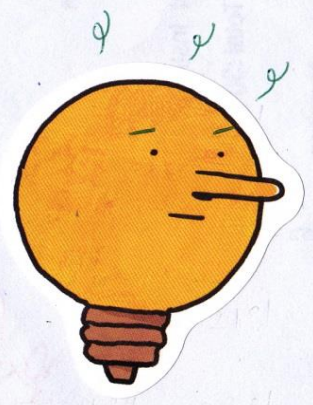
한국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 ✘ 까문의 시간표

	08:50 ~09:50	09:50 ~10:50	10:50 ~11:50	11:50 ~12:50	12:50 ~13:50	13:50 ~14:50	14:50 ~15:50	15:50 ~16:20
월요일				정 심 시 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초 1~2	✓ 초 3	✓ 초 6, 중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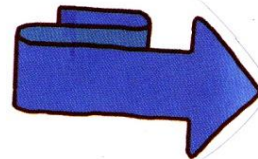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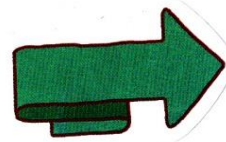


- 11월 7일 : 홈스테이 첫 주, 수업 준비 기간
- 11월 14일 : 첫 수업
- 11월 21일 : 비자 연장 신청으로 인해 치앙마이로 이동, 수업 취소.
- 11월 28일 : 비자 연장 신청으로 인해 치앙마이로 이동, 초 6, 중 1~3만 수업 진행



한국어,  
어디까지 공부했나?

	일자	수업 내용
초 1~2	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지리적 위치 소개</li> <li>• ㄱ ~ ㅁ 까지 읽고 쓰기</li> <li>•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li> </ul>
초 3	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지리적 위치 소개</li> <li>• 이름 말하기 (저는 _____ 입니다)</li> <li>•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li> </ul>
초 6, 중 1~3	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지리적 위치 소개</li> <li>• 이름 말하기 (저는 _____ 입니다)</li> <li>• 안녕하세요 / 안녕히가세요 감사합니다</li> </ul>
	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숫자 읽기 (만 단위까지)</li> <li>• 자음과 모음 결합해 글자 쓰기</li> </ul>



11월 수업  
그리고 한국어 수업



Y에서 받았던 시간표는 고학년 위주로,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시간표였다. 하지만 라이동에 와서 받은 시간표는 금요일 오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2달간의 수업 목표가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가능할까 싶었다. 학년별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첫 주는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했는데 학년마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많았다. 그래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문장 2~3마디를 익히는데 초점을 맞춰 수업 하려고 하고, 초 6, 중 1~3은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서 원래의 목표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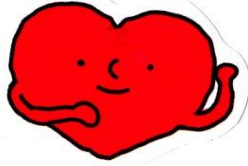


마음



11월 까몬의 에세이

파파야 그리고 사람 관계



나는 음식이든 과일이든 맛있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맛있다고 얘기하면 부모님께서 매일 주셨기 때문이다. 부모님 입장에서서는 나를 챙겨주고 싶으신 거였겠지만, 난 싫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고, 심지어 대학교에서는 이것 배양기까지 했다. 처음 라이딩에 와 내 소개를 할 때 파파야를 좋아한다고 했다. 산강핑 Y에 있을 때, 파파야는 가끔 먹는 과일이었고 무척이나 맛있었기 때문이다. 파파야를 좋아한다고 한 나를 위해 홈스테이 부모님께서 파파야를 챙겨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좋아서 때 끼아다 통씩 먹었지만, 계속 먹다보니 질려갔다. 날 위해 가져오신 파파야가 썩어갈 썩고 파파야들이 어디서 난 파파야인지 알게 되었다.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 따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다른 집에서 먹으라고 가져다 주신 것도 있었고, 홈스테이 엄마가 옆집에서 얘기하고 가져오신 것도 있었다.

솔직히 나는 홈스테이 속의 관계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에 가족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도 이상했고, 고향이라는 시간 동안만 같이 지내게 될 텐데 하는 생각도 컸다. 하지만 내가 먹는 파파야가 그냥 파파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르게 느껴졌다. 관계의 가치를 만드는 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내 마음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노력해야겠다.

아, 파파야는 요즘도 매일 먹고 있다.



### MP3의 밀당

2014. 11. 9 작동을 멈춤  
급 우울해짐

2014. 11. 19 다시 작동하기 시작  
급 행복해짐

→ AS 받아보려던 MP3가  
왜 다시 작동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Bojnara

### 11월 까운의 키워드

1. MP3

2. 개

3. 예뻐졌다

개만 보면 도망대다가 흠스테이 집의  
개를 보면서 개의 매력에 눈을 뜨음.  
개도 하품하고, 기리개도 핀다고  
짚사이에끼 얘기하고 무시당함.



어느 순간부터 하루종일 부르기 시작  
잠잘 때는 들으면서 자서 룸메이트인  
인디가 다른 노래는 들으라고 부탁함.  
왜인거 모르겠으나 계속 부르게 됨.

# 따부작집 셋째딸 할머니네 이야기

[책사이]





꽃밭에는 꽃이 모여 살고요,



꽃밭! 그리고 꽃들~ 내가 '우리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이다.  
~~~~~  
(홍스테이집)

집 옆의 텃밭에서 노란 국화를 갈러 장날에 꽃목걸이를 팔아 부수입을 얻고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 때문이다!!  
나를 포함하면 네자매에, 할머니까지! 대장명의 꽃다운 사랑들과 같이 살고있다ㅎ  
한국에서도 네자매로 살아왔는데 우연히 홍스테이에서도 네자매로 살게 되어...  
산기하기도 하고, 북적북적한 집에서 살면서 타지에서 가족사 생활을 하며 잊고 지냈던  
'정'을 새삼 다시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새로운 가족과의 행복한 홍스테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 가족소개



아빠가 62세  
농부 > 3<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아서  
사주 뽑지는 못하지만 ㅋㅋ  
전통악기로 연주도 해주시고  
친절하게 관심 가져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언니들에게 전통악기를 알려주신  
선생님이시기도 하다 ~

엄마라' 60세  
뽕

요리 솜씨가 정말 좋은 우리엄마!  
체크마크 주방을 좋아하신다 :D  
사진을 찍을 때면 늘 수줍어하시는  
모습이 아직 소녀 같으시다 ㅎㅎ  
자전거를 타고 다니실 때  
나이가 만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신다 ♡

동생디우 12세 ♀  
라이동학교초6

마음에 안든 일이 있으면 눈썹을  
찌뿌려며 바로 영웅에 타거나  
슬직한 내 동생!! 막내이다보니  
언니들의 잔심부름을 해야한다.  
특히 언니들의 전독 사진기사로  
돌러다닐때면 늘 바쁘다 ㅋㅋ

다우언니 28세 ♀  
사회선생님

'별'이라는 뜻의 '다우'언니!  
차분하고 잘 웃어는... 정말 외모  
외엔 드안 언니랑 쌍둥이가 맞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성격의 소유자~  
동생 디우와 나를 늘 챙겨주시는  
나와 같이 라이동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다. 말썹꾸러기 1학년  
아이들의 인기만점 선생님이다 ✨

드안언니 28세 ♀  
태극선생님

달'이라는 뜻의 '드안' 언니는  
명량씨네!! 그 자체이다 ~  
다른 사랑을 즐겁게 하는 게 본인의  
즐거움인 언니는 수다스럽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닌다! 그래서 언니가  
가끔 학교에 기숙사 사랑일로 자고  
오는 날이면 집이 한층 조용해져서  
번지리가 늘 크게 느껴진다 ㅋㅋ





# 이모네

간호사 이모 (2세, ♀)  
영어를 잘하신다 (글 개그 감각이  
뛰어나시고 크게 늘 나를 챙겨준다!



# 멍멍이를



독딕 (4살, ♀) 추위를 많이 탐.  
눈이 잘 보이지 않음. 씻는 걸 싫어함.



무흠 (5세, ♂)  
말썹거리기 미운 5살. 놀아주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 이모네에서만  
아니라 우리집에서도 막둥이로 예뻐  
독차지한다 ~



씨따 (?살, ♂) 네개의 눈'이라는 뜻.  
성격이 온순함. 호기심이 많음.

무옴 (19세, ♀)  
어머니의 개그 감각을 물려받았다  
라온아띠 태극팀과 인연이 깊은 JK고등학교에  
다니는 중!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뚝뚝 (?살, ♂) 덩치가 작은 뚝뚝이  
덤벼들어 도 놀 잘 받아주는 듬직한 멍멍이.  
독딕에게 상냥하지만, 다른 개들과의  
사이엔 별로 좋지 않음.





# 가족이 생긴다는 것

## 새로운

이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기도 하고,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면 그 여파가 큰 편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쉽게 정을 주거나 친하게 대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즐겁긴 하지만 걱정도는 일이기도 했다. 2달이라는 짧아진 시간,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은 물리적 거리 등이 계속 떠올랐다.

그런 고민을 안고 홈스테이를 시작했고, 나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고민은 해답을 찾을 필요도 없이 잊혀져갔다. 나도 문득 내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이 들면 드는대로 표현하고, 잠시 떨어져있는 시간에도 보고싶으면 보고싶다고 그러고 표현했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별에 대한 걱정 없이 감정에 충실하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오자'는 라동아씨 자선 때의 초심도 아니었고, 정을 타 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이별이 너무 정들어버린 이들과의 이별보다 나를 괴롭게 했다는 사실 때문도 아니었다. 그냥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많이 정들고 서로를 많이 아끼게 된 만큼 한 달 후의 헤어짐은 분명 힘들고 새로운 가족의 번거로운 나를 허전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별의 순간까지 감내할 수 있을만큼 새로운 가족과의 삶은 행복하다.

새로운...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도 낯설지도 않은 나의 익숙하고 친근한 가족! 그런 가족이 생겼다는 것은 나에게 큰 행복이었다.

학교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구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년까지 총 10개 학급이 있는 라이딩학교  
각 학년에 한 학급씩, 전교생은 60여명인 작은 학교이다!! 학교의 운명이나 선생님  
수의 문제로 초등학교 4, 5학년은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고 다른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온다. 학생수가 적다보니 선생님들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날을 가리는 유치부 아가들, 놀기 좋아하는 말쑥쟁이 초등학생들, 착하고 말걸들은  
중학교 친구들!! 정이 안가는 학년이 없다 ♡\_♡ 그래서 비록한 실력이나 노력해서  
더 좋은 미술 수업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  
라이딩 학교에선  
어떤 소식이??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미술 선생님**입니다!!

라이딩 학교에서 내가 맡은 과목은 '미술'이다. 생명과학이 전공을 뺏겨 어린 시절부터 미술적 재능은 거리가 멀었던 내가 미술을 맡게 된 이유는 라이딩 학교에서 요청한 네개의 과목 중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었기 때문이다.

실직해, 처음에는 내가 미술을 가르치게 된 것이 그다지 달갑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정규 수업으로 미술을 가르치기엔 나의 미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맡는 것을 순전히 나의 목숨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나에게 주어진 가림이자 의무에 소홀하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다. 화려나 소문처럼 테크닉이 어려워 선생님의 지도가 중요한 미술 분야보다는, 쉽고 재밌는 기법을 시도하려고 했다. 쉬운 기법이지만 아이들의 수준에 맞도록 그림을 통해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노력했고,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 아이들이 관심 가지고 있던 한복이나 도깨비용 캐릭터 등의 소재를 활용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수업이라는 단점을 채우고자 다양한 소재, 재미있는 활동 등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이제 보편 한 공간의 수업만 남았는데, 아이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하이팅!! ✨🌈👉👈  
선생님!

우리는 마을에 모여 살아요.



라이딩마을. 내가 20년간 살아왔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곳이였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곳에 모여 노는 아이들. 단골 구멍가게와 그곳의 주인 아저씨.  
태극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익숙한 고향을 느낄수 있다는 사실이 늘 즐겁다.  
YMCA가 있던 산캄팽에선 친구가 없었는데(ㅠㅠ) 이곳에선 곳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수있어서 참 좋다♥ 물론 곳곳에서 만나는 얼굴엔 팀원들도 포함!! 가족들과 장을  
보러 갔다가 일시장에서 마주친 쿤짜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까똘!! 우리 네명을  
애정으로 품어주고 있는 바로 그 마을이 라이딩 마을인 것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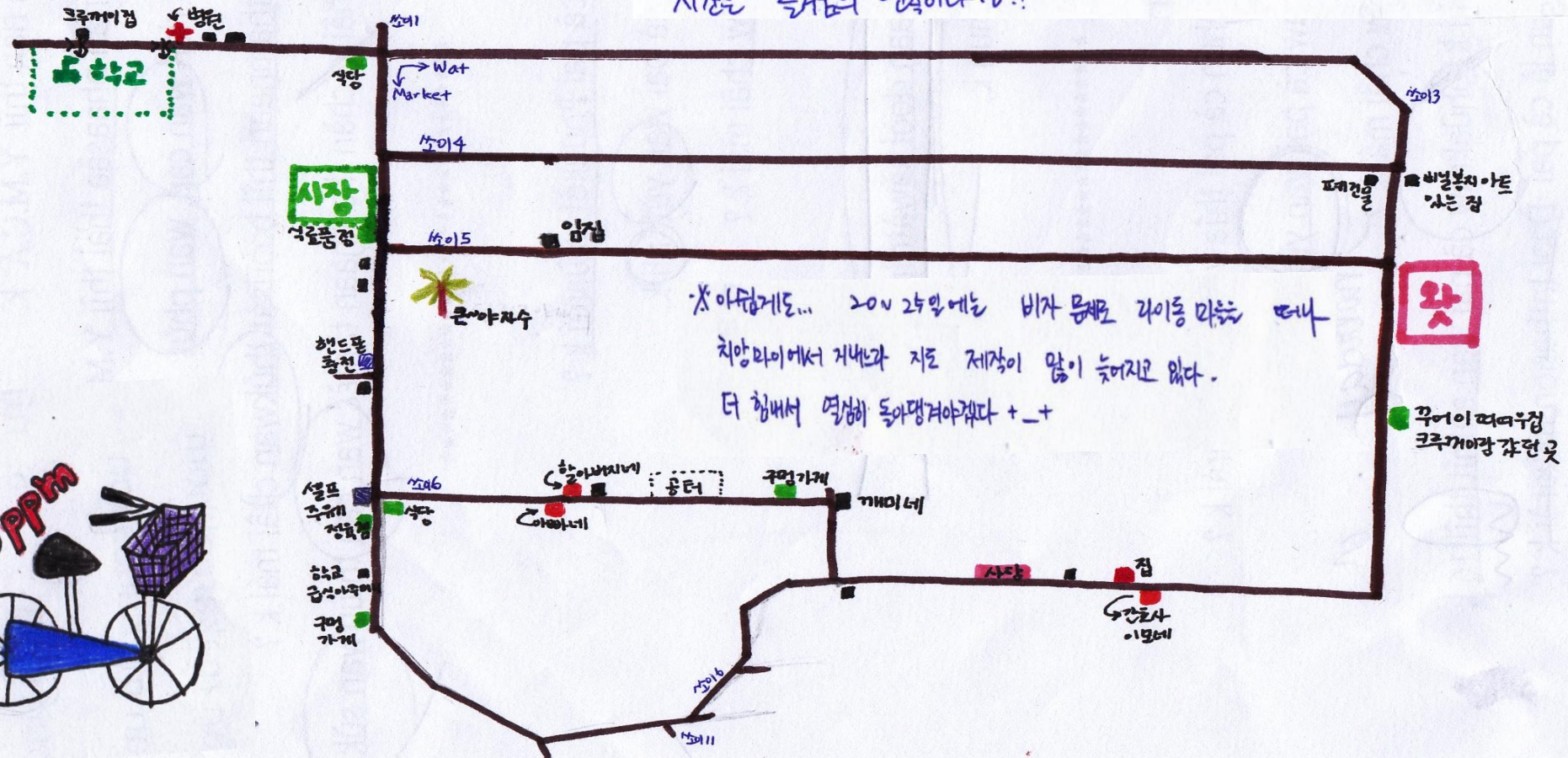
라이딩 마을의 매력  
지금 꼭 배껴보세요♥

마을 지도 만들기 대작전



# 라이동, 어디까지 가봤니?

고등학교 시절... 10년을 넘게 산 고향 마을에서 길을 잃어버릴 적이 있다.  
 수학 여행에 가려는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어 1시간은 헤매었다 π-π  
 '갈치야 갈치'인 나에게 새로운 공간 '라이동 마을'은 그저 그림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마을 곳곳을 둘러다니고 싶은 마음에... '지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됐다.  
 11월 16일부터 시작한 지도 만들기는 매일 아침 8:30가까이 (시간 엄격 잡은 나)나  
 하도가 끝나고 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쫓겨잡 중이다.  
 언젠가 언니와 같이... (언니를 자전거 뒷좌석에 태우고!!) 길을 배웠다음에.  
 다음날 아침 그 길로 다시 지나가면서 지도를 그려는 중이다!! 언저가며 마주치는  
 마을 주민들과 인사도 하고, 좋아하는 가게도 마음껏 탐수 있어서 '지도 만들기'  
 시간은 즐거움의 연속이다 :D!!



\*이렇게도... 20v 25v에는 비자 문제도 라이동 마을은 떠나  
 치앙라이에서 거닐고 지도 제작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힘써서 열심히 돌아댱겨야겠다 +-+



알 수 없는 그날 밤  
라이프라통



태국 2대 명절 중 하나인 라이프라통! 홈스테이 시장과 동시에 라이프라통 축제가 시작되어 아작은 너무나 좋았던 가족들과 더가게 놀러다니라 정신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과 즐기는 전야제(?)부터, 가족들과 놀린 풍등들~ 슬픔 없이 밤하늘 수놓던 불꽃들~ 매일 매일 아름다운 밤하늘 같이 보아서인지 낮을 많이 가리닌(?) 나도 가족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크게 라이프라통 축제를 연다는 치앙마이 시내!에 가볼 순 없었지만... 언젠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보다 정말 소중한, 나의 새로운 인연인 홈스테이 가족과의 마을 축제가 더욱 좋다 ♡

시끌벅적 마을 행사

언니의 친구가 신부이고 까물·쿵자이의 친척분이 신랑인 결혼식!! 하객들의 대부분이 인연이 있는 동네 결혼식이었다. 동네 주민들이 어찌어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웃사촌'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D 태국의 화려한 문화를 볼 수 있었던 점도 100%~ 결혼식 같은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동네 아주머니의 생신날, 그냥 이유없이 모여서 노는 날 등... 마을 주민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 거의 매일 밤 마을 어딘가에선 신나는 파티가 벌어지는 라이프라통 마을~ 하루하루가 즐겁다!!



11월 20일 에세이

지난 9월과 10월에도 월간 보고서 에세이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달은 유독 더 그렇다. 보통,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어느 수준까지 담아낼까, 어떻게 글의 표현을 가미할까 고민했다면, 이번 달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정리하는 것 자체가 큰 고민이었다.

홈스테이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특별한 경험과 부딪히는 깨달음이라든가, 오랜 고민을 거쳐 내린 결정을 갈고닦는 것들이었다. 그저 하루하루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뛰어들고, 집에선 온 가족이 들리랏아 밤을 새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일상이 행복했다.

그래서 나는 11월을 그저 "사랑 배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에세이를 읽고 읽을 누군가는 '대학생 레터 블로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먼 타지까지 가서, '영유아의 실천'이라든가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같은 웅대한 성과를 얻은 그 사랑 배운 날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국내를 돌며 '각종 4차'로 살아온 지난 수개월이라는 시간 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늘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 좀 새롭고 생소한 나의 홈스테이 가족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놀이 하고 있었던 학생들, 아예 이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다른 라운더러 팀들, 늘 챙겨주는 스텝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잔소리까지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를 지난 라운더러 모임 포스트에서 보았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사랑'이 주는 것들, 수혜하는 것들 결국 '사랑'이기 때문인 것 같다. 돌아보면 '라운더러'로서 나의 시간은 '사랑'이 있었기에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 뿐만 아니라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껴졌던 순간까지도 '내 생애 가장 짜릿했던 날들'일 수 있다.





물론, 이런 '사랑 넘쳐 나는' 생활이 처음부터 형성된 것은 아니다.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라는 잠깐의 타이틀의 무게에 이르기까지 살아왔던 대학 생활까지. 사랑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가운데서로 살게 되면서 수많은 과목하게 됐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나에게겐 너무 낯설고 어려웠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끝이 끝대어, 어쩌면 더욱 크고 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진정한 사랑은 알아야 할 빛과 밤 구분되지 않는다.

그때는 내가 이전 주시는 사랑은 이것 저것 재빨리 받고 랍씩 받아 주고, 마음 속에만 감춰뒀던 사랑은 아무런 지도 않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랑이 됐다.

같은 결심이나 불확실 의지 없이, 서서히 어떻게 변한 나를 보면, 아마 같은려고 무지로 노력해서 절대 다 같은 수많은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버려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남겨서 인 것 같다.

물론 아직도 나에게 '사랑'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관계가 아닌 내 삶과 일부를 바라보게 된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사랑 넘쳐 나는 삶'이 정말 좋다.



인미의

동인

행복...



우리집은 아빠, 엄마, 나랑 동갑의 남자형제, 남동생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퍼(아빠) 팡 대부분의 한국아빠와 같이 말씀이 적어고 과묵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가끔 날 보며 웃어주신다.

매(엄마) 어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언제나 간식을 챙겨 주시고 오늘 하루는 즐거웠냐고 물어보시는 자상한 분이시다.

닝카이(동생) 닛. 태국어가 미숙한 나를 위해 우리집 통역을 맡고 있는 중요한 인물! 저녁식사후나 주말에 항상 같이 놀고 서로 태국어, 영어 공부를 봐주는 좋은 관계의 동생

나와 나이가 같은 형. 시내에 있는 대학교를 다녀서 주말어/만 집에 오는 데 서로 다가가질 못해 아적 10미터 말도 나누기 못했다는... 빨리 친해지길 바래.  
(바쁜 형... 같이 사진을 못찍었다...)

ครอบครัว  
(가족)





이 친구들은 우리집 옆집에 사는 아이들.  
학교 끝나고나 주말에 같이 놀기도 하는데 말을 참 안듣는다.  
가끔 때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지는 아이들이야.



우리집의 또 다른 가족들(?) 우리집은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가정이다. 이 친구들은 팔리기도 하는데...  
나는 아직도 적응중이다. 가끔 보면 무섭기도 하다.

이분들은 엄마의 친구분들. 나를 참 좋아하신다. 하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가끔 응주가무도 함께 즐기시는  
유쾌한 분들 이시다.





## 5월 6월 7월 (학교)

이곳 라이딩 학교에서 내가 맡고 있는 과목은 체육시간  
사실 난 이곳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는 티터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다.

내가 맡은 학년은 초6, 중1, 중2, 중3, 초4, 초5 이렇게  
6학년이다.

이곳에서 배구, 배드민턴, 달리기, 축구, 체력검사를 한 달  
동안 수업하였다. 태국 학생들은 체육시간에 모두가  
참여하고 다 같이 놀면서 즐겁게 수업을 받는다.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태국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내 수업시간이 정말 좋다.





## ประเทศไทย (태국)

지금 이곳이 정말 좋다.

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초록빛 나무들이 좋다.

자전거를 탈 때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이 좋다.

가족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이야기하며 밥 먹는 것이 좋다.

마을 사람들이 '인디'라고 부르며 웃어주시는 게 좋다.

이제서야 태국이란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 เพื่อน(친구)

비자 문제로 바빴던 11월. 원래 일정과 다르게 자주 마을 밖에 나갔다면 그때마다 반겨주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함께 지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새 점이 들었나보다.

나는 이곳에서 선생님이다.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기 이 학생들 아니 이 친구들의 기억속에 '인디'라는 친구로 남고 싶다.

미래의

행복



가득했던



11월 이야기

+ 에세이는 중간중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새로운 시작

드디어 11월! 출국하기 전부터, 태국에 와서도 쪽~ 나는 11월이 되길 손꼽아 기다렸다.  
11월부터는 마을에 들어가 **홈스테이**를 시작하고 **학교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9월, 10월 산캄페지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너무 ~~x100~~ 큰 기대를 했기에 혹시나  
나 자신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도 했었다. 하지만 한달을 살아보니 기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팀원 넷이서 살기 → 각자 홈스테이

와이파이 빵빵 → 인터넷 없음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 → 오직 태국어만

대학생 → 선생님

육배미형 → 아침형 인간

행복? → 행복!

---

---



## 2. 가족이 생기자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 ~ ♡



### 엄마 (매 대)

정말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우리 엄마♡  
마을 사람들과 술을 먹는 날이면 나에게  
술을 권하는 마음 아주머니, 아저씨들과  
술 그만줘라고 뭐라하시는 엄마와의  
신경전이 일어난다 ㅋㅋ 그 사이에서  
나는 엄마 몰래 술을 한잔 마시고는  
한다. 아~ 여기서도 엄마 눈치  
보며 술을 마셔야 되다니..... ㅋㅋ  
엄마는 날 잘 챙겨주신다. 내가 유독  
좋아하는 반찬 (콩치양)이나 우유(콘  
소이 밀크), 케찹 등..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알아내시고 자주 사주신다.  
언니나 동생은 별로 안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나때문에 자주 주신다.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안좋아보이면 (난 그냥 화장식 몇번  
간것뿐이었는데...) 계속 걱정해주신다.  
정말 엄마가 생겼다.. 사실 나는 집에  
가면 동생, 언니보다도 엄마와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눈다. 엄마 사랑해용 ♡



### 아빠 (퍼 캉)

우리 아빠는 정말 정말 귀여워서다.  
키는 나랑 비슷하시고 약간 콧등이 푸른  
뺨이었는데 정말 만화캐릭터 같으시다.  
노래가 어디선가 흘러나오면 춤을 추시고  
갑자기 마당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시고. ㅋㅋ 아빠는 항상 웃고  
계신다. 지금도 이글을 쓰며 아빠생각  
을 하니 아빠 특유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우리 가족중 가장 애교가  
많은 아빠. 항상 나에게 장난  
섞인 말을 건네신다. 사실 이유는 모르  
겠으나 아빠의 태극마이 가장 약아들기  
힘드는데 그래서 그렇지 아빠와 나는  
항상 웃음으로 대화한다 ㅋㅋ.  
(오늘 아침엔 내 뺨을 가리키며 너  
점점 살찌고 있다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 언니 (민)

10월에 3인공로 집에 있는 언니!

근처 다른곳에 살기 때문에 매일 복수는 없지만 언니가 오는날이 참 좋다.

언니가 오면 일단 고기파티가 열린다꾸 언니는 고기를 정말 사랑하게 때문이다. 언니는 정말 말랐는데 엄청 많이 먹는다.

6시에 저녁식사 (고기파티)가 시작되면 9~10시까지 계속 먹는다. ㅋㅋㅋ 정말 놀랍다. 8시쯤 나는 너무 배부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면 언니는 양 마이임~

(아직 배안부러~) 라고 하며 계속 먹는다. 그리고 언니는 정말 쾌활하다. 항상 복때 마다 보고싶었다며 나를 반겨준다.

그리고 언니는 꾸미는걸 좋아하는데 어디 같이 놀러갈 때마다 나에게 화장하고 안경벗고 예쁜웃임과 나타라고 하신다...

(뜨르르....) 무튼 진짜 언니같다꾸



# 동생 (미우)

나랑 늘 같이 있는 여동생 미우. 미우랑 나는 같은 학교여서 등.하교도 같이 한다. 미우는 좀 양전한 편이다. (학교에서는). 집에 오면 영락없는 중3 여학생이다. 나에게 쉬운편으로 들어서 이야기 해주어서 나랑 가장 많이 잘 통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직 더 친해지고싶다. 미우야~ 넌 내 마음을 모르겠지? T.T 스마트폰 그만 만지고 나랑 이야기좀 하자! ㅋㅋ (스마트폰이 부러운건가... 흑) 그리고요 나한테 태극문자 공부도 잘 알려주고 항상 옆에서 나를 챙겨줘서 고맙당♡

##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지난 두달 9월, 10월 는 우리 팀원들, Y스텝들과 함께 있었지만 가끔씩 뭔가 외로웠다. 재밌고 좋았지만 가끔  
원인 모를 외로움에 슬프기도 했었다. 이제서야 그때 왜 외로웠는지 알겠다. YMCA에서 살 때는 가족이 없었지.  
형제 자매들은 있었지만 엄마, 아버지가 없었다. 홈스테이 가족이 생겨 한달동안 사랑속에 지내니 안겠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 사실 나는 내가 라몬아씨가 되고 태극림이 되었다고 들었을 때부터 홈스테이를 정말  
많이 기대했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삶, 다른 문화, 다른 집에서 산다는건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떤 때, 언니, 동생  
이 되까? 나는 낯선 환경에서 잘 지낼까? 참 많이 궁금했다. 11월이 되길 손꼽아 기다렸고 드디어 11월 3일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한국에선 어린 남동생 하나를 둔 나는 늘 언니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물론  
내 남동생도 좋다 ㅋㅋ) 10월까지도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안 알려주던 YMCA 스텝들 덕분에 직접 집에 가서야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언니와 여동생이 있는 걸 보고 난 정말 기뻐다. 자매가 생기다니 < < !!  
사실 막상 홈스테이가 시작되고 새로운 집에오니 적응기간이고 뭐고 다 필요없었다. 첫 날부터 너무나도 좋았다.  
나를 정말 가족처럼. 딸처럼 여겨주셔서 불편함도 없었다. 나도 그들에게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은 했다.  
'잠자는 것 빼고는 방에 들어가지 않기' 라는 원칙도 세워 항상 가족들과 어우러려고 노력했다. 열기를 쓸 때도  
동생 미우가 숙제할 때 옆에 슬쩍 가서 썼고 태극어 공부할 때도 항상 엄마, 아버지가 있는 마당에서 지냈다  
(우리집은 마당에서 모듬계 이루어진다 ㅋㅋ) 아마 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여서 괴롭지 나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



사실 우리 태극팀 비명 중 우리집이 가장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몰라 3분동안 가만히 있었다) 편하지 않은? 집이다. 다들 집안에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세탁도 뭐 다 있지만... 우리집은 다 밖에 있다. 집안에는 딱 자는 것만. 화장실 번기도 우리집만. 수세식이고 부엌. 세탁 등 모든게 마당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밖에서 ~~있~~ 지낸다. 때문에 모기를 비롯한 많은 벌레를 매일 물리지만...! 집안에는 장판이 다 뜯겨져 이뭍속에 들어갈 때 반 닭고 들어가야 하지만! (발땀고 잠이나 자라 ← 이 말을 직접 실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에 온게 너무나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잔 때 먹고는 보통 마당에 다 계시기 때문에 마당에서 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6시에 저녁을 먹고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8시가 된다. 딸이 잘 통하지도 않지만 늘 이렇게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해도 집에 오면 행복하다.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니! 사실 이곳에 있으면 한국 가족 생각도 많이 난다. 엄마, 아빠 보고싶어요 ♥



### 3. 선생님이 되다.

- ⊙ 내가 맡은 과목: **영어**
- ⊙ 수업 요일 및 학년: 월요일 - 초 6  
화요일 - 초 1,3  
수요일 - 문화교류시간  
목요일 - 초 2  
금요일 - 중 1, 2, 3
- ⊙ 나만의 수업 원칙: 그저 시간만 때우는 선생님이 되지말자.  
수업시간동안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세번이상 부르지-



## 선생님이 된다는 것

마을에 와서 내가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매일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이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에게 귀여운 아이들로 가득찬 이곳은 진정한 활력소이다. 처음에 텅빈 각자 수업 시간표를 받았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나만 유독 수업시간이 많았고 매일 매일 수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수업을 하니 매일 매일이 기다려지고 너무나도 즐겁다. 수업 준비하게 조금은 부담스러웠 때도 있지만 막상 수업을 진행하면 한시간은 초과할 때가 다반수이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된다는 게 그저 신기하고 재밌기만 했다. 하지만 진짜 눈앞에 닥치니 '선생님'은 꽤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중언한 역할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수업 원칙을 세웠다. '그저 시간만 때우는 선생님이 되지 말자' 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매일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한다. 아이들과 즐기면서도 유익한 수업을 진행하고 싶기 때문이다. '수업시간동안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세 번씩 부르자' 라는 원칙은 아이들에게

수업 집중을 시키고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세운 건데 효과가 좋은 것 같다ㅋㅋ 60명의 아이들 이름도 바쁘리 외쳐지고 아이들라도 친해져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물론 항상 이 초심'은 기억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건 아이들도 느끼는 건가? 항상 수업은 갈 때면 신나서 달려와 내 손을 잡고 안기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다. 나에게 큰 사랑을 주는 아이들이 참 고맙다.

# 4. 마을에서 살기.

나에게 마을이란? 사랑이다

라이딩 마을에 들어와 라이프라이프 축제, 경연회 그 외에 많은 낯선 마을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냈다.  
마을에서 살다 보면 정말 그 전과는 다른 삶이다. 외로움 없이 사랑으로 가득찬 날들이었다.  
다들 나를 반겨주셨고 항상 관심 가져주셨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면 나를 초대해주셨고 어찌 놀러간  
가면 나를 꼭 챙겨가주셨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좋아하는 나기에 나는 마을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행복이다.  
벌써부터 '한국가치만고 그냥 여기서 간사하면 안되냐?' '한국가면 꼭 편지 써라' 웃으며 이야기  
하시는 마을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참 고맙다. 마을은 나에게 사랑이다.



# 5. 뜨겁없는 시

요새 내가 좋아하는 시 한편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잠이라도 곁에 있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더 좋아해 주지 않음을 보여줘주고  
이만큼 좋아해 주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 애태운다고 원망하지 말고  
애처롭게 가지한 사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게만 하는 사랑에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주수 있었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증개치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그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하고

어두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양쪽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 할 수 있는

나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용운 / 인연선 2

